



해외양계뉴스



아르헨티나

러시아에 닭고기 처녀 수출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말 4,000톤에 달하는 냉동닭고기를 처음으로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세계에서 닭고기 생산량이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가 러시아에 수출을 시작한 것은 국내소비용보다 작은 크기인 1.1kg~1.6kg사이의 닭고기를 러시아측에서 요구를 했고 이를 공급해준다는 조건이 합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도계수출업자들은 이에 맞추기 위해 어린 닭들을 선별하여 포장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인의 구미에 맞는 전형적인 유색계를 가진 닭들을 선택하여 수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까지만해도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주로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그동안 현대식 시설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아 시장 규모를 확대해왔기 때문에 올해 닭고기 생산은 740,000톤으로 과거 어느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는 보통 도체중 기준 2.1kg으로 타 국가보다 높은 실정이다. 비록 현대화산업이 도래한 '90년도에 소비의 증가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94년 이후 실질적인 닭고기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소고기 가격 상승과 닭고기 수출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국내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PI)

말레이시아

2000년 닭고기 50kg, 계란 520개 소비 예상

말레이시아 반도의 가금산업은 축산 전체로 볼때 67%(가금육 47%, 계란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가금산업은 '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연 7%의 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의 경제위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과거추세로 성장한다면 '97년 가금육 69만4천톤(1인당 연소비량 35kg)생산에서 2000년 90만톤 생산이 가능하여 소비량이 50kg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계란의 경우 '97년 64억개에서 2000년 94억개로 증가되어

1인당 연소비량이 520개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닭고기는 보통 42~45일을 사육하여 2.0~2.2kg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사료 요구율이 2.01~2.1이고 폐사율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량을 보면 닭고기의 경우 총 8,796톤중 6,000톤이, 계란의 경우는 총 수출량 6.74억개(생산량중 11%)중 97%가 싱가포르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PI)

홍콩

조류독감에 따른 파장

홍콩에서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500명의 요원을 투입해 140만수의 닭을 일제히 도살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도살을 실시한 일부 요원들에게는 도살후유증인 정신압박 증세가 나타나 정부에서는 전 요원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배려를 베푸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살 조치에도 불구하고 홍콩 닭고기의 80%가 수출되던 중국 광둥성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홍콩 닭고기 시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변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어 홍콩정부에서는 너무 혹독한 조치가 아니냐며 크게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독감 파장으로 중국의 광둥지역과 북경 등에서의 닭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등 중국의 닭고기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닭 이외에 오리 및 칠면조까지도 도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류독감으로 19명이 감염되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NS)

우크라이나

닭고기 수입량 여전히 증가 추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닭고기 수입량이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한 축산전문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3년 불과 1,000톤에 불과하던 닭고기 수입량이 '96년도에는 38,000톤으로 상당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당시 우크라이나의 닭고기 소비량은 38만4천톤이었으나 '96년에는 23만5천톤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였는데 '97년도에는 소비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여 24만톤이 될 것으로 잠정집계 되었다. 참고로 '96년 수입된 물량은 네덜란드(48%), 미국(39%), 벨기에(4%), 이탈리아(2%)순으로 나타났다.(PI)

중국

특수가금 인기산업 부상

중국에서는 지난 봄부터 특수가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사육농가들을 흐뭇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둥지역에서는 꿩의 경우 1마리당 24,000원(현재 환율, 원화 기준)에 팔려나가고 있으며 자고 종류의 가금은 마리당 9,000원에, 새끼는 3,000원에 팔리고 있다. 특수가금은 홍콩에서 더 비싼가격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수가금중 Black Pheonix와 Silky Fowl은 국·내외 시장에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작 한쌍은 30~6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타조도 또한 비싼데 중국에서는 앞으로 유망사업으로 타조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WP)